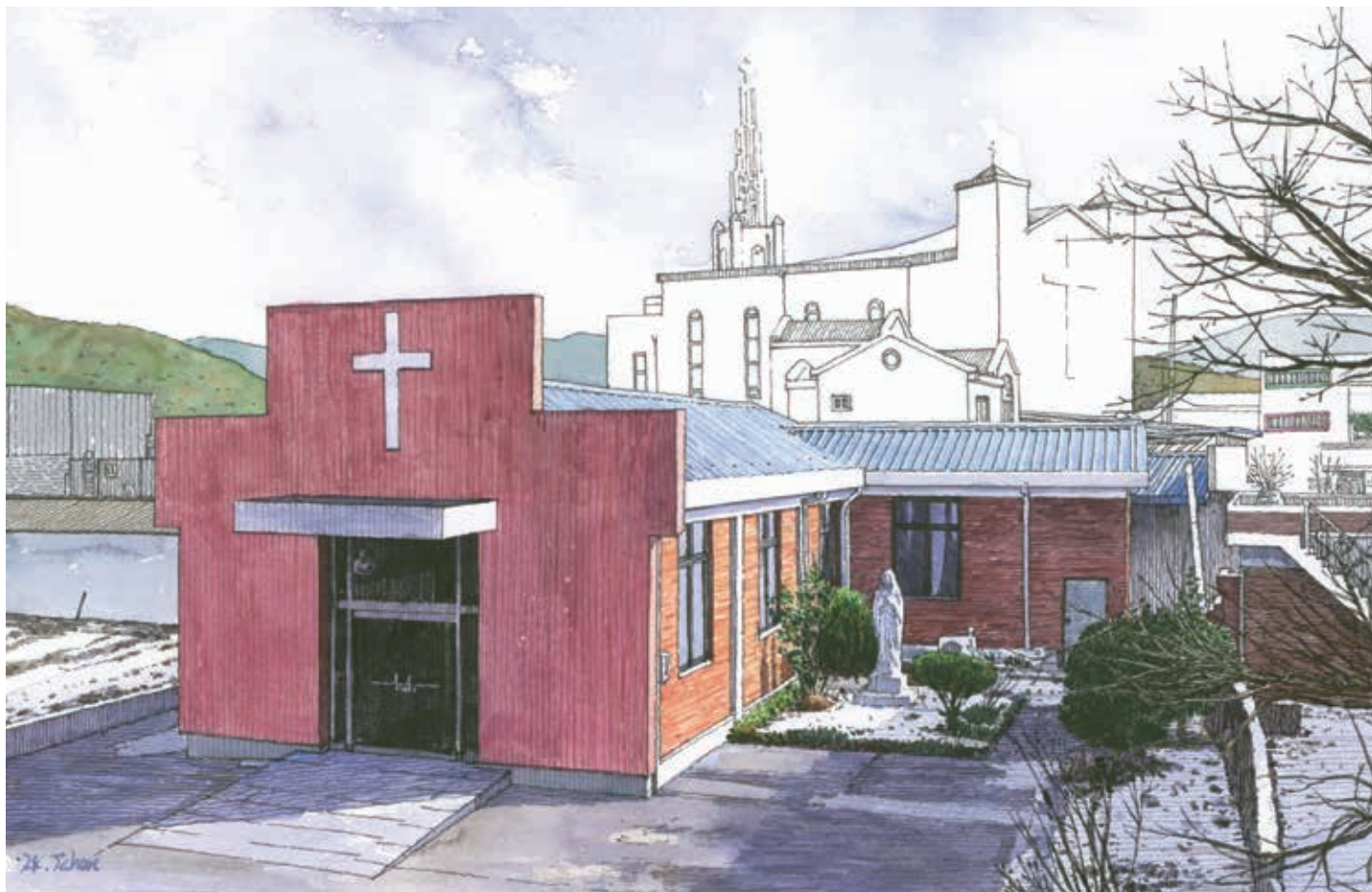




연산공소(논산부창동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4년

대림 제1주일 | 2024년 12월 1일(다해)

제1독서 예레 33,14-16

제2독서 1테살 3,12-4,2

화답송

- ◎ 주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 올리나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와 사귀시고, 당신의 계약 그들에게 알려 주신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루카 21,25-28,34-36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신학교 지원반 모임
12월 8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명례방



예비신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희년을 준비하는 대림을 시작하며



오기환 사도요한
서천서면 주임

강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달력을 넘겨 보았습니다. 올해 대림 1주일인 12월의 첫날 시작됩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다사다난한 2024년도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전례상 다른 이들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벌써 2025년 '다해'를 살기 시작한 것이지요.

2025년은 25년마다 오는 희년입니다. 이번 희년은 12월 마지막 주에 베드로 대성전의 문을 열면서 시작됩니다. '희망의 순례자'라는 희년의 주제는 암울한 소식이 많았던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 세계는 전쟁과 이상 기후로 인해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고통과 상실을 체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될 것만 같았던 경제 상황도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지지부진하였고, 정치적·사회적으로도 여러 혼란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모든 이가 희망찬 내일을 꿈꾸기보다 불안한 내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교회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림 시기는 그 희망을 준비하고 나아가라는 시기입니다. 대림 시기는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선 심판의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온갖 표징 속에서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지만,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오히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그날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서 속량의 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바오로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처럼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지탱해 주는 것은 언젠가 그날이 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원을 다시 회복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한마음으로 이 은총의 대림 시기를 맞이합시다.



바울이
(1098)
유판식 토마스



1949~1950년 대전지목구 선교보고서와 선교상태 일람표

라리보 주교가 유럽으로 떠나면서 파리 외방전교회 한국지부장 보드뱅 신부가 지목구장 대리로서, 경리부장 조제 신부와 참사위원 샤보 신부는 참사회 위원으로서, 포교성성에 보낼 1950년 연례보고서를 6월과 7월에 걸쳐서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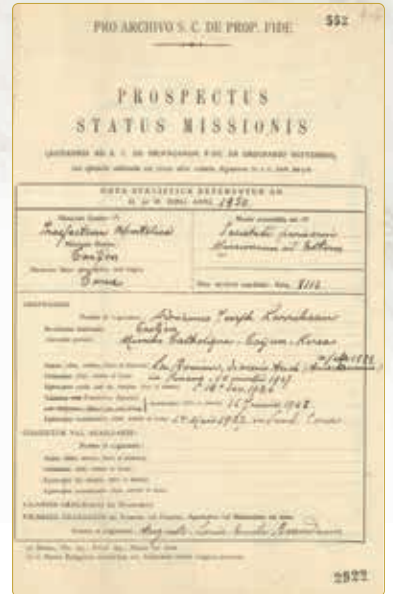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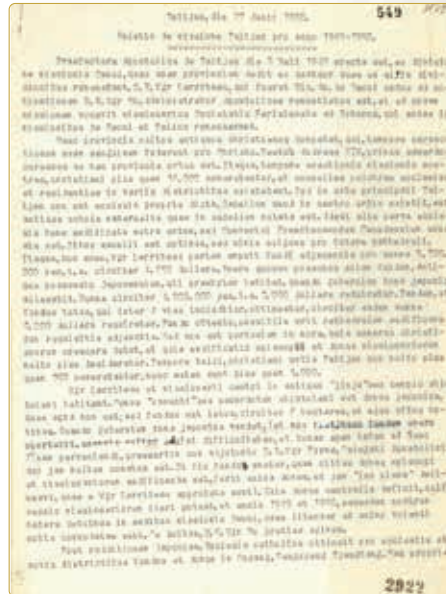
이 연례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지만, 연례보고서는 그해 6월 30일까지의 상황을 적용하기에, 실제로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대전지목구의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이다.

둘째, 포교성성에 올리는 정식문서 안에서 정확하게 지목구(Praefectura Apostolica)라고 선교지 지위(Missionis Gradus)에 기재하였고, 선교지의 이름(Missionis Nomen)에 대전(Taitjen)이라고 명시하였다. 이제까지 충청남도의 지목구라고 불렸던 것을 이 문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대전지목구라고 표현했다.

셋째, 대전지목구 설립 날짜를 이 보고서에서 1948년 5월 8일로 적고 있으며, 지목구장 서리의 임명을 같은 해 6월 16일로 써넣었다.

● 권명명 안드레아 신부 내포교회사연구소 부소장



인류복음화서 역사문서고, Nuova Seria, vol. 1786(1950-1952), rubr. 36-3, prot. 2922/50, ff. 549r, 552r.

대림 제1주일 사랑의 나눔 - 덕산순교성지

덕산 땅은 해미순교자들의 생활터전이고 순교하기 이전에 하느님을 만나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던 거룩한 땅입니다. 천주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병휴가 전파한 양명학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던 땅이며 이벽 성조가 6개월간 머물며 천주교의 마중물인 양명학을 배워 북학파를 통하여 천주교서적을 접하면서 이승훈을 세례 받게 하여 천주교의 싹을 틔운 곳입니다.

사람다움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토대로 천주교가 번성하여 강완숙 골롬바, 손자선 토마스, 인언민 마르티노, 정산필 베드로 등 수많은 성인들을 배출한 땅이며 이분들이 모두 덕산순교성지인 덕산관아와 옥터에서 옥고를 치르며 하느님을 증거한 성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연 군묘 파묘사건 이후 배교자까지 잡아죽이라는 대원군의 명령으로 이곳 출신의 배교자들이 전국적으로 도망가 다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천주교가 급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 곳입니다. 신리와 합덕까지 아우르는 광활한

지역에서 붙잡힌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반드시 덕산 관아에서 문초를 받고 사형언도를 받아야만 한티고개를 넘어 순교할 자격을 얻는 곳입니다. 따라서 덕산순교성지는 순교할 자격을 얻는 곳이며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을 증거하는 성지입니다.

할 것 없고, 볼 것 없고, 갈 곳 없어 다만 기도라도 하고 가고 싶은 소박한 성지를 지향하는 성지라서 순례자들에게 헌금을 받지 않고 누구라도 편히 와서 먹고 쉬고 기도하며 머물고 싶은 성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박 아가다가 굶어 순교한 곳이기 때문에 배고픔이 서려 있는 성지라서 순례자들에게 '배고파'라는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초 5월에 인준된 성지라서 이제 시작이지만 어느 성지보다도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한 성지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하나이고 거룩한 성교회 안에 형제자매인 우리 모두의 성지이고 자랑인 덕산순교성지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2028 사목교서

성사 은총 안에서 형제 공동체인 교회 복음을 전하며 피조물을 돌보는 교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8.20)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지상의 하느님 나라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교회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하느님 나라를 닮은 형제적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사목 계획은 교회공동체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사제와 함께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고 형제적 사랑을 살아가는 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복음 선포 공동체입니다. 복음 선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사명이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소명이기도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복음 선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사도 20,24)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나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1코린 9,16)

2028년은 대전교구 설립 8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 한 해 전 202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열립니다. 이 둘 모두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과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교구 사제들과 형제자매들이 함께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교구 공동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의 영성생활이 한 걸음 더 성숙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2025년부터 2028년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보고 교구민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사목

매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계획된 교리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리교육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강의식 교리교육으로 일관된 주일학교 운영은 지금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명 많아야 두 명의 아이가 한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환경에서, 친구 아이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주일학교 12년을 다니면서 본당 신부님과의 1:1 만남이 전혀 없거나, 본당 신부님의 교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리 시간을 통한 본당 신부님과의 만남 혹은 짧더라도 신부님과의 1:1 만남과 대화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깊은 인상을 준다는 것이 최근 아이들이 여러 기회에 보여준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은 사제성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 면담을 할 경우, 학생들의 70-80%가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사제성소를 처음 느꼈다고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강의식 교리는 1년에 10번 정도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구세사적 흐름(창조, 이집트 탈출, 유배, 유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사(특히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성품성사), 기도생활, 한국 교회사(초기 역사와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 등), 교회의 몇 성인들 등을 학년 별로 필요한 주제들을 중복하여 배치하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몸에 익히도록 도와주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당이라는 공간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교리 시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인격적인 만남과 우정을 쌓아가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합시다. 한두 명의 자녀로 자랄 경우 이런 기회는 아이들이 건강한 인성을 기르는 데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고, 신앙적인 바탕에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여건이 되는 몇 분당에서 이런 시도를 하여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국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사목에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방법을 연구하여 신부님들께 제안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좋은 효과를 내는 사례들을 모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이 아이들을 위해 어떤 공간이 되어 주면 좋겠는지 학부모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찾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적당한 직장을 갖는 것은 물론 내 집 마련의 여건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이는 출산율 저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을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인내하며 가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청년들도 분당 신부님과의 1:1 만남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의 고단함을 하느님과 함께 마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영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분당 신부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신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2027년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며, 국내외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힘을 얻고 신앙적인 위로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분당에서 신부님과 신자들이 이 점에서 함께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평신도 지속양성

교구에서는 사제 지속양성과 더불어 평신도 지속양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구 평신도지속양성위원회의 논의와 연구를 신부님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특히 신자들의 성경 공부에 대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최근 일주일 혹은 이 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필사한 신자들에게 축복장을

드리는데, 매년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신자들에게 축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자들이 말씀에 큰 관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신자들의 열망이 크다는 것은 이미 교구 시노드 과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인식되었습니다.

성사와 기도와 더불어 말씀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구 설정 80주년을 맞는 2028년까지 모든 분당에서 신자들과 복음서 가운데 한 권, 바오로 사도 서간 가운데 한 권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를 제안합니다. 마태오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 중 한 권 그리고 로마서나 코린토 전서 가운데 한 권을 추천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사목부에서 신부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책자를 마련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사목부에서는 교구 설정 80주년이 지난 후에도 신자들이 분당에서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봉사자 양성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당 규모에 따라 적어도 1-5명 정도의 봉사자를 양성하여 활용한다면, 분당의 영적 분위기도 성숙되고 신부님들의 사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사회복음화와 사회복지

교회의 사회복음화 활동은 몇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집니다. 하나는 무분별한 개발, 인명이 존중되지 않는 정책 시행 혹은 정치사회적 비리 등에 대한 복음적 비판과 그에 따른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계 문제와 같이 전 세계와 더불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생태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생태계 문제에 대한 교육과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한 재생에너지 운동을 펼쳐왔고, 여러 분당에서 참여하여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외에도 물자 소비 절약 등 생태계 복원과 관련하여 힘써 주시는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신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로마 8,19-21)

사도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되었듯이, 세상 피조물들은 인간의 손을 통해 구원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느껴져 생태계를 위한 우리의 활동이 더욱 책임감 있게 다가옵니다.

사회복음화 활동의 또 하나 중요한 분야가 한끼100원나눔운동을 포함하여 본당에서 힘써 주고 계시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카리타스 활동입니다. 사회복지국에서는 본당에 ‘카리타스 공간’이라 불릴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신자들이 언제든지 적은 먹거리라도 이곳에 모아 이웃과 나누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3천 명의 고독사가 있었음을 생각할 때, 본당 구역 내의 노약자들의 상황을 자주 확인하는 일종의 네트워크와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에서 신부님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릴 것입니다.

4. 소공동체 사목과 소공동체 촉진팀 양성

신부님들이 본당 사목을 맡게 되면 신부님의 달란트로 본당공동체가 많은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본당 사제가 바뀌더라도 지속되고 더 성숙하고 발전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리교사 양성이나 말씀 봉사자 양성 그리고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소공동체 사목 등이 그렇습니다. 소공동체 사목은 신자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 사제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돕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교구에서는 본당 신부님을 도와 일관성 있게 소공동체 운영을 할 수 있는 촉진팀 양성을 하고 있고, 이미 여러 본당에서 신자들을 선발하여 파견해 주셔서 소공동체 촉진팀 양성과 연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기 촉진팀 봉사자 양성과 파견이 이루어졌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신부님들께서 신앙공동체의 복음적인 성숙을 위해 소공동체 촉진팀 양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되는 양성 교육에 봉사할 신자들을 선발하여 파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또한 평신도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 본당 사목평의회 회칙

우리 교구는 2015년 12월 8일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대전교구

시노드 개최를 선포하고, 약 3년 반 정도의 시노드 여정을 거쳐 2019년 4월 27일 시노드 폐막미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시노드 여정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본당 사목평의회 회칙 마련입니다.

이미 지난 1년 동안 시안을 나누어 드리고 시행하였고 사목평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여 수정, 보완을 거쳐 이제 완결된 회칙을 배포해 드립니다. 물론 이 회칙이 완벽할 수도 없고, 본당 사정에 따라 회칙에 제시된 그대로 본당 구조를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 사목평의회 사제·수도자·평신도들이 고민하면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기에, 사제들과 사목평의회 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읽는 것입니다. 이 회칙 안에는 사목평의회 시노드적 운영을 위한 약간의 새로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기회에 신부님들께서 사목평의회 위원들과 정독하는 기회를 갖고, 사목구 운영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 사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칙 뒷부분의 ‘일러두기’를 참조하시면 본당 사정에 맞추어 적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사제의 직무 수행과 영성 생활

먼저 사제성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제 부족 현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몇 해 전부터 사제성소의 위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큰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조금이라도 도울 만큼의 여력은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견에 더 힘써 줄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도 최근 국내외 여러 교구에서 선교사제 파견을 요청받았습니다.

신부님들께서 본당 임기 동안 반드시 적어도 한 명의 예비신학생을 발굴한다는 마음으로 성소자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부분의 예비신학생들이 어릴 때 함께해 주시던 본당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 사제성소를 느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장 근본이 되는 생명력은 성사 은총입니다. 사제들이 먼저 성사 은총의 수혜자가 되고, 그 은총의 체험을 성사 집전을 통해 신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7성사 가운데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는 일상 안에서 항상 주어지는, 마치 음식과 같은 은총의 성사입니다.

고해성사에 대한 간단한 팜플렛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구원의 역사 안에서 고해성사의 뜻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총에 자주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점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도록 미리 성사로 정해주셨으니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저는 특별히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제의 강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강론은 사제에게 항상 어렵고 거룩한 숙제입니다. 사제는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강론 안에서 사제는 신자들과 함께 창조하시고 위로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리교육이나 인문학적인 유익한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사제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새 영세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세례 받은 신자들이 세속 일에 쫓기다 보면 신앙생활이 성숙되고 습관화되기 전에 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모님들께서 본당 신부님과 협력하여 세례를 받고 2년 정도 지나기 전 견진성사 때까지 새 영세자의 미사 참례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노드 정신에 따른 교회 운영’이라는 개념이 이제 상당히 보편화되었습니다. 지난 교구 시노드를 진행하면서 초기에 신자들이 신부님들과 한 자리에서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런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당 한마당’을 하면서 신부님 몇 분이 이런 자리를 가끔 가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신부님들께서 사목을 하시면서 신자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져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당 5년 임기 가운데 2번 정도, 임기 시작 1년 지난 후 두 번째 해 전반기 그리고 4년째 되는 해 전반기 정도면 신부님의 사목에 좋은 참고가 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과의 이 만남을 이번 본당 사목평의회 회칙에서 ‘본당 사목 총회’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구 시노드 당시에 행했던 ‘본당 한마당’ 자료를 정리하여 신부님들께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구 사제 회합이 사목 계획 및 실천의 공유와 협의의 자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제들 사이에 사목 계획과 실천을 공유하는 것은 사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제들 간의 형제애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사목교서를 바탕으로 세운 사목 계획을 공유하고, 사순 시기, 대림 시기 신자 교육(양성)의 계획을 공유하면서 필요에 따라 함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사제는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독신 생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교회의 발전과 하느님 백성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제는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거리를 두고 복음적 가난을 살아갑니다. 신자 여러분들에게 사제들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상의 변화가 참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목교서는 2028년 교구 설정 80주년을 바라보면서 작성했습니다. 그 지향은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의 영적 생활 그리고 사제들의 직무 수행에서 신자들과의 소통하는 방식 등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일상적인 변화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성모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2024년 12월 1일 대림 첫 주일에



천주교대전교구 교구장 주교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20. 대림 시기에 대해서

대림 시기는 무엇인가요?

12월이 되면 길거리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북적입니다. 그리고 북적이는 길거리에서 축제를 위한 화려한 장식을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종교인이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이든, 누구에게나 하나의 축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세상의 화려함과 달리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 차분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자고 초대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성탄”의 준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재림하실 구세주를 기다리자고 촉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세상의 분위기와는 달리 더욱 차분하고 경건하게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림 시기는 두 가지의 시기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대림 1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의 어둠을 희망의 빛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묵상으로 초대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구체적인 성탄을 준비하도록 초대합니다. 매일미사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12월 16일까지는 “대림 제3주간 월요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12월 17일부터는 “대림 0주간 0요일”이라는 표시가 사라지고 세상의 달력이 표시됩니다. 이는 대림 시기의 구분을 전례력으로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대림 시기의 전례적인 상징으로는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는 것(사순 시기처럼 대영광송을 바치지 않지만 알렐루야는 노래합니다.)**”, 제단에 **“대림환”**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환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대림환은 월계수나 전나무 또는 비슷한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화환에 네 개의 초로 장식한 것을 말합니다. 네 개의 촛불은 대림 시기 4주간 동안 차례로 켜으로써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이 점점 다가옴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많은 신자분이 대림초의 순서에 대해서 묻곤 하시지만, 전례법적으로 정형화된 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분심을 일으킬 수 있으니 만드는 방법, 초를 켜는 방법보다는 초를 켤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님께로 두는 것이 대림환이 갖는 목적성에 더욱 합당할 것입니다.

대림 시기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다음 구절을 기억하고 준비했으면 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낮혀져 굽은 길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카 3,4-5)”

궁금한 질문은 tjubo@djca.kr 메일 발송해 주세요!

●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주님, 사제 안문기(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본 교구 사목자이신 안문기(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사전담, 1970년 서품) 신부님께서 2024년 11월 18일(월) 04시 31분에 선종하셨습니다.

고인의 장례 미사는 1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교구장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의 주례, 총대리 주교님과 교구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장례 미사 후, 신부님은 대전

교구 성직자 묘원(하늘묘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력

1939.10.20 당진 출생
1970.10.02 사제서품(출신성당 : 합덕성당)
1970.10.17 국내유학
1971.07.23 가톨릭문화회관 부관장
1972.12.30 규암성당 주임신부
1972.12.30 부여성요셉병원 병원장 (겸임)
1975.09.10 문창동성당 주임신부
1978.01.29 해외파견 (독일 라우엔젠)
1985.08.29 선화동성당 주임신부
1990.08.24 천안봉명동성당 주임신부
1996.02.01 도마동성당 주임신부
1999.02.04 성남동성당 주임신부
2004.02.12 신탄석성당 주임신부
2009.01.22 성사전담
2024.11.18 선종

교구알림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12월 평화기원 월례미사

- 때 : 12.17(화) 19:30
- 곳 : 내동성당
- 미사집전 : 대전민화위 위원사제
- 문의 : (042)636-1331

전담사무

대전직장직종사무부 송년미사

- 때 : 12.12(목) 19:00 / 18:00부터 고해성사
- 곳 : 대전정부청사 후생동 1층대강당
- 집전 : 교구장 김중수 주교

청년성서 2025년 겨울연수 신청안내

- 제101차 탈출기 연수 : 1.9(목)~12(주일) / 대철회관
- 제102차 탈출기 주말연수 : 1.18(토)~19(주일), 1.25(토)~26(주일) / 대철회관
- 제103차 창세기 연수 : 2.13(목)~16(주일) / 살레시오 교육사목센터(정림동)
- 대상 : 창세기, 탈출기 그룹모임 완료자
- 노트검사 기간 : 12.8(주일)~15(주일)
- 천안지역(하품센터) 12.15(주일) 15:00~18:00
- 연수신청 : 12.13(금)~20(금)
- <http://www.agnusible.or.kr> 홈페이지 신청계시판
- 문의 : 대전교구 청년성서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주님께 찬양을

- 찬양사도 : 비아포르
- 때 : 12.4(수) 20:00
- 곳 : 하품센터 (천안시 서북구 월봉5길 23)
- 대상 : 누구나
- 문의 : (041)572-7179, hapum7179@gmail.com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국공립 유성어린이집 2025학년도 원아모집

- 대상 : 2022년생, 2023년생
- 주소 :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89번길 27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 문의 : (042)822-2185

2025년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성지순례

- 2.11(화)~22(토)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 525만원 (대한항공)
- 2.19(수)~3.1(토) 이탈리아(11일) / 520만원 (대한항공)
- 3.24(월)~28(금) 나가사키, 고토(5일) / 195만원 (대한항공)
- 공동경비 별도(1인 1일 10유로)
- 맞춤형 순례 가능
- 문의 : 대전가톨릭평화방송 (042)250-3200
- 분도여행사 (02)852-8525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 (보라삼거리 부근)
- 상담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대전교구 체나콜로 총회

- 때 : 12.14(토) 10:00 총회, 11:00 미사
- 곳 : 덕산순교성지 성당
- 대상 : 대전교구 체나콜로 전체 회원
- 문의 : 지도사제 구분국 신부 010-2927-4442

파티마 세계사도직 (쵸)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 때 : 12.7(토) 시작기도 10:00, 미사 11:00
- 곳 : 대흥동 가톨릭문화회관
- 문의 : 010-3450-6533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제25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 미국(3주, 2025.1.15~2.4)
- UCLA·UC버클리·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년, 실리곤밸리, 샌프란시스코
- 사이판(4주, 2025.1.11~2.4)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 문의 : (02)734-0999, cpbccamp.com

청주 초정성령회관 철야기도

- 때 : 매주 (금) 21:00~(토) 03:00
- 강사 : 전국 유명강사
- 문의 : (043)213-9103, 010-5482-6744
- 서틀버스 :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 19:00 출발
-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 19:20 출발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 1월 개강, 각 6~8주

-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 / 이진현 신부
- 고대 그리스의 시간과 그리스도교 신학 / 김민철 신부
- 모세의 삶과 신앙 / 주원준 박사
- 구약으로 만나는 하느님의 여러 얼굴들 / 김민 신부
-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 최지원 수녀
-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 박혜원 강사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신청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2024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캠프

- 때 : 2025.1.3(금)~5(주일)(2박3일)
- 대상 : 중학교 1,2학년 / (043)260-5076
- 접수 : 홈페이지 12.17(화) 10:00~ (선착순)
- 회비입금 : 15만원 / 접수확정 문자 후 이체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모집

- 대상 : 7세~성인 및 실버
- 수업 : 일대일 수업(회화, 여행영어 등)
- 주최 :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 대구청소년수련원
- 문의 : (053)593-1273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 대상 :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 내용 :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 원서 : 11.11(월)~2025.2.14(금)
- 문의 :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캘리그라피, 이콘
- 전례초조각(초·중·고급) 성가, 영성심리상담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수도회 및 피정

말씀과 함께 성체조배 기도

- 때 : 12.14(토) 09:00~13:30
- 곳 : 성체 선교 클라라 수녀회
- 문의 : 010-8683-6848 (문자 접수)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 연말연시 : 12.30~2025.1.2(해님아·해돋이·한라산)
- 한라산눈꽃산행 포함 : 2025.1.17~19, 1.23~25, 2.8~10, 2.14~16, 2.22~24
- 문의·접수 :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피정

-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 한라산눈꽃산행 : 2025.1.11~13, 1.16~18, 1.20~22, 1.24~26, 2.1~3, 2.7~9, 2.25~27
- 연말연시 : 12.29~2025.1.1(한라산산행·일몰·일출)
- 문의 :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 때 : 매월 두번째 토~주일
- 곳 : 대전 정림동 수도원
- 대상 :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 문의 : (042)583-3946

품 그리기(10주간 / 1:1동반)

- 사별로 인한 상처치유 프로그램
- 자녀, 배우자, 부모 사별 / 수시 신청 가능
- 문의 : 010-3081-1816 세종 영성프락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성소모임

- 대상 : 만 45세 이하 미혼여성(상시 상담가능)
- 문의 : 010-9199-4995

이화병원 이종민(카타리나) 김지연(아네스) 산부인과(수술전문)/유방외과/MRI, 영상진단센터/건강검진센터/내과/신경과/정형외과/인공신장실/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T. (041)579-1400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동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여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7인 진료 T. (042)220-5500 대흥동성당 맞은편

골롬반 청년 대림 피정
• 때 : 12.14(토) 10:00~17:00
• 곳 :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 대상 : 23~34세 신자
• 신청 : bit.ly/골롬반청년피정12
• 참가비 : 1만원 (현장납부, 점심식사 포함)
• 문의 : 010-5033-9302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
• 1박 2일 : 12.21(토)~22(주일), 2025.2.14(금)~15(토)
• 3박 4일 : 12.5(목)~8(주일), 2.17(월)~21(금)(4박5일)
• 8박 9일 : 12.26(목)~2025.1.3(금), 1.6(월)~14(화)
• 40일 : 12.14(토)~2025.1.22(수)
• 곳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예수수도회 메리워드 심리상담센터
• 심리 상담(청소년, 성인-개인, 부부, 가족 문제)
- 문의 : 010-5784-8585
• 모래놀이 치료(아동, 청소년, 성인)
- 문의 : 010-3488-6765
• 곳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내적치유나 영적돌봄에 관심있는 분
• 2025년 봄학기 임상사목교육(C.P.E.)프로그램
• 때 : 2.18~5.20 - 평일반 또는 토요일반
• 곳 : 섭리C.P.E센터 / 8명 선착순 모집
• 문의 : 010-8863-3637 천주섭리수녀회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 II : 12.20(금)~22(주일)
• 성경완독 : 2025.1.2(목)~10(금), 2.7(금)~15(토)
• 문의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가정사목부 프로그램 안내		
• 신청 : 가정사목부 홈페이지 http://familia.djcatholic.or.kr • 문의 : (042)256-5487~8		
프로그램	때 · 곳	내용 / 대상
혼인교리	12.7(토), 12.21(토) 비대면	혼인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태아와 산모축복(영유아) 미사	12.11(수) 10:00, 세종 성요한바오로2세성당 12.12(금) 10:00, 전민동성당 12.18(수) 10:00, 모산성당 12.20(금) 10:00, 천안용곡동성당	임산부, 영유아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12.12(목) 19:30, 원신흥동성당 12.19(목) 10:00, 천안신부동성당	모든 신자
제98차 선택주말	2025.1.17(금) 19:00~19(주일) 17:00 (2박3일) 수리치골 성모성지	대상 : 미혼 남녀 젊은이, 성직자, 수도자, ME 수강부부 수강료 : 14만원

대림 시기 지구별 대림 특강

지구	본당 및 장소	일시	주제	강사
대전남부지구	관저동	12.3(화) 19:00	그리스도인의 자유(미사 전후 판공성사 있음)	이용수 신부
	관저2동	12.10(화) 19:00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미사 전후 판공성사 있음)	안동훈 신부
	가수원	12.5(목) 11:00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의 구조와 의미	안동훈 신부 (참가비 1만원, 본당 사무실 접수)
		12.12(목) 11:00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의 핵심 주제	
		12.19(목) 11:00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총 정리	
		12.26(목) 11:00	2025년 정교회년 칙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대전북부지구	유성	12.12(목), 12.19(목) 19:00 미사 중	전례특강	윤진우 신부
대전서부지구	둔산동	12.13(금) 19:30	작은것들에 대한 감수성	김용태(마) 신부
아산지구	온양신정동	12.8(주일) 미사 후 11:00	말씀과 하나 되어	김재덕 신부
	온양용화동	12.12(목) 19:00 미사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	이상규 신부
천안서부지구	천안쌍용동	12.6(금) 20:00	생태영성 1	남상우 신부
		12.13(금) 20:00	생태영성 2	남상우 신부
		12.20(금) 20:00	복된 신앙생활	권선민 신부
	천안봉명동	12.1(주일) 10:00 미사 중	길	김민희 신부
		12.22(주일) 10:00 미사 중	대림 시기의 의미	윤진우 신부
	천안신방동	12.1(주일) 11:30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루카 3,10)	김재덕 신부
	천안용곡동	12.1(주일) 미사 후 11:00	죽음의 거울을 통해서 본 삶의 향기	박창환 신부
당진지구	솔미성지 기억과희망 대성전	12.12(목) 19:30 미사 20:00~21:00 특강	오르간 연주와 함께하는 솔미성지 대림 특강 - 성모님과 함께 구원의 빛을! -	허권범 신부 오르간 : 박수연, 정미선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73°C

총 모금 730,439,865원

[11.9~14 모금액] 9,625,940원
본당 921,690원 / 개인 · 기관 · 행사 8,704,250원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외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늘봄약국 (전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약사) 약사 김주현(로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문 앞 T. (042)222-0662	정한방병원 (재활의학과 한의과 협진) 병원장 정주영(요한) / 김서연(프란치스카) 중풍재활 / 수술 후 재활 / 교통사고 / 도수치료 365일 진료, 평일 매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타임월드 도보 1분 T. (042)486-6000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 · 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룡I.C 인근 T. (041)732-0620 대표 강희권 울리오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오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홀플러스 옆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8 성모발현지(아시아나) 545만원 3/9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60만원 3/11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신청·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그리운 어머님께

친구들과 오랜만에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설렁탕 집에서 모여 식사를 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밑반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설렁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찬들이었지만, 그날은 유독 깍두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갭게 버무려진 먹음직스러운 깍두기...

깍두기를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깍두기를 유난히 맛있게 담그셨던 그 솜씨보다, 깍두기 하나에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시던 소망을 담은 어머니 사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제게 자주 이런 말씀을 들려 주셨는데 기억하시겠죠?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깍두기 하나라도 반듯하게 생기지 않은 건 손도 안 댔단다.”

어머님의 기준에서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은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어머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모나지 않게 반듯하게만 살면 된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임신 중에 방바닥에 앉을 때마다, 바닥 장판의 모난 구석 부분에도 절대 안 앉으려고 했지.”

그 당시 방바닥 장판은 정사각형의 네모난 부분들을 이어 붙여서 모양이 완성되었는데, 어머님은 태교를 위해서 구석진 곳에는 결코 앉지 않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깍두기 하나라도 모난 것을 드시면 혹여 자식이 그 모난 것을 닮아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갈까 봐 걱정하신 어머니 마음은 소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임산부로서 앓는 것조차 편치 않으셨을 텐데도, 앓을 자리가 혹여 당신 아들의 성격에 영향이라도 줄까 봐 신경을 쓰신 어머님 마음은 예민한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진정한 ‘사랑’임을 이 아들은 살아가면서 마음 깊이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오늘따라 문득 마주한 식탁 위의 깍두기를 보니 어머님 생각에 자꾸만 목이 맵니다.

제가 어머님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그토록 간절하게 염원하신 그 바람대로 지금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마음에 깍두기에 선뜻 손이 가지지 않습니다.

새해가 코앞입니다. 평소 게으름 피다가 개학날이 다가오니 그제야 부리나케 일기를 쓰는 아이처럼, 그동안 돌아보지 못한 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매일 매일 돌아봅니다.

새해에는 어머님의 마음을 제 마음 안에 새기며, 언제라도 깍두기 반찬이 나오면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 건양대교수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41. 단열처리로 냉난방 절약하기

폭염이 언제면 물러가나 했는데 어느새 나뭇잎 색깔이 바뀌고 아침저녁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오늘날은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냉난방 이상으로 건물의 단열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패시브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단열과 환기에 초점을 둔 건축이 늘고 있습니다. 벽의 단열을 잘하고 이중창 유리나 단열창호, 기계식 열회수장치, 햇빛 가리개 등으로 연간 실내 온도를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패시브하우스에 준하는 에너지 절감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신축 건물로 이사하거나 재개발/재건축만이 답일까요? 당장은 겨울에 창문에 뽁뽁이 비닐을 붙이고 봄이면 떼는 걸 반복해야 할까요? 노후 건물의 단열을 정비하는 것을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역시 이런 단열처리를 통해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을 하지만, 원금은 건물/주택보유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더딥니다. 오래된 건물을 모두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없는 만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확대하고 지원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대전 북부지구 꼬미씨움 단원 영성교육



대전 북부지구 꼬미씨움 단원 영성교육이 11월 16일 (토) 전민동성당에서 열렸고, 교구장 주교의 강의와 미사 봉헌이 있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미사



사회복지국(국장 노승환 신부)은 11월 17일(주일) 관평동성당에서 교구장 주교 주례로 '제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미사를 봉헌했다.

예물봉헌 때에는 사회복지분과원들이 기부받은 물품을 봉헌하였고, 파견 강복 전 '카리타스 공간' 축복식을 했다.

대전평단협 2024 신앙체험 및 선교수기 공모전 시상식



대전교구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임우택 F.살레시오, 담당 김경호 신부)는 '2024 신앙 체험 및 선교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6명의 수상자(장려상 2명,佳作 4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였다.

천안두정동본당 마태오 복음 성경공부



천안두정동본당 (주임 이용호 신부)은 9월 4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마태오 복음사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마태오 복음 성경공부를 시작하여 11월 13일(수) 8강을 마지막으로 종강했다.

배방본당 2024년 추수 감사 미사



배방본당(주임 김홍식 신부)은 11월 17일(주일) 올 한해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며 각 가정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준비하여 추수 감사 미사를 봉헌했다.

교구위령연합회 총회 미사



대전교구 위령연합회(회장 최영길 프란치스코, 담당 이석우 신부)는 11월 17일(주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총대리 주교 주례의 미사를 봉헌했다.

교구 병원원목 사제·수도자 연수



교구 병원원목 사제·수도자 연수가 11월 18일(월) 대전 해수육장성당에서 열렸고 총대리 주교와 병원원목 사제·수도자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2024년 아버지·어머니학교 합동재모임



가정사목부(전담 이영일 신부)는 11월 17일(주일) 2024년 아버지·어머니학교 합동재모임을 했다.

합동재모임을 통해 다시금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길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길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시국기도회

2024. 12. 9(월) 오후 7시
주교좌 대흥동성당

1부 시국미사(19:00 ~ 20:30)
천주교 대전교구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2부 평화대행진(20:30 ~ 22:30)
성당 → 목척교 → 우리들공원

* 성당 내 주차 불가하오니,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진시 태극기, 전지초, 현수막 등을 미리 수령해 주시고, 행진이 끝난 후 태극기, 전지초 등은 각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의평화위원회 (044)270-3072